

식품업계의 만능포장인 될 터

체계적인 이론 현업에 접목시키는 노력 기울여야

안덕준/제일제당(주) 건강식품연구소 과장

몇년전 포장의 중요성이 조금씩 인식되기 시작했을 무렵, 국내에서는 포장에 관심있는 사람들이 선진외국의 포장학문을 공부하기 위해 유학 길에 오르기 시작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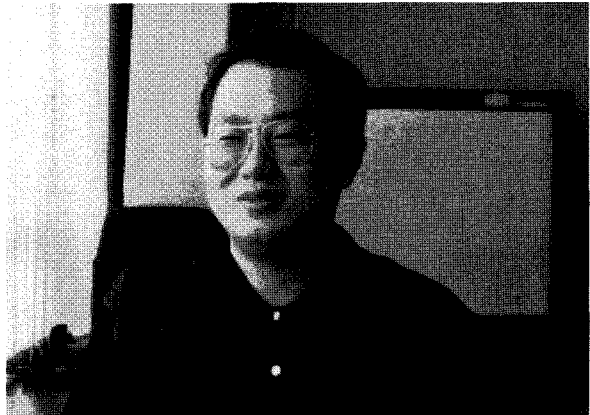
얼마 전부터 국내에는 미국에서 전문 포장교육을 받은 젊은 석·박사들의 활동이 두드러지고, 그 가운데 미국 럿거스대학에서 식품포장학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한 안덕준 과장이 제일제당 건강식품연구소에 적을 두고 국내 포장계 발에 앞장서겠다는 당찬 다짐으로 업계에 발을 딛었다.

연세대학교 식품공학과를 졸업한 그가 미국에서 식품포장과 인연을 맺은 것은 식품포장에 관심이 많았던 그의 지도교수가 포장관련 프로젝트에 참가하면서 함께 포장의 길을 가게 됐다고 말문을 여는 안 과장은 출근한지 얼마되지 않아 조금은 긴장된 모습이었다.

그가 포장에 관심을 가진 것은 유학을 가기 그전부터였을런지 모른다. 그의 부친이 모 제과회사의 초컬릿 종이 포장지 제조회사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그 당시 포장지상에 문제가 생겨 큰 곤욕을 겪은 후로 어린 마음에 의문이 생기면서부터였을지도 모른다.

"지난 6월20일 귀국, 연수를 마치고 9월1일부터 정식출근을 하여 전통식품 포장파트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식품의 보존기간과 관련한 연구나, 포장재로 인한 식품의 변질을 막기 위한 방법, 포장과 식품과의 근본적인 관계 등 입사와 동시에 많은 일들을 진행하게 되어 어려움도 있지만 공부한 것을 활용한다는 것은 저를 상당히 만족시키고 있습니다"라며 흥분된 어조로 말을 이었다.

그는 "연구하는 사람은 설비에 대한 애착이 상당히 많아 좀더 우수한 기계로 정밀도 있는 실험을 하고자 하는 욕심이 많은데 제일제당의 경우 실험할수 있는 설비가 우수하다는 것과 다른 식품회사나 제과회사와는 달리 제품의 종류가 많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많다는 점 때문에 제일제당에 입사하게 됐다"고 입사동기를 밝혔다. 또한 국내업체중 포장에 관심과 투자를 가장 많이 하고있는 기업중 하나라는 점이 그가 제일제당을 선택하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 제일제당 건강식품연구소 안덕준 과장

"선진외국의 학문을 공부하기 위해 유학가는 것을 국내 학생들에게 적극 권하고 싶습니다. 저도 나름대로 유학준비를 했다고 자부했으나 막상 적응하기가 어려워 1~2년간 고생을 했습니다. 그러나 차차 어학실력도 늘고 그들의 공부방식에도 적응이 되어 무사히 과정을 마칠수 있었습니다. 더욱이 럿거스대학은 미국에서 식품분야에 지원을 아끼지 않는 대학중 하나이며 식품관련 기자제도 세계 수준이어서 충분한 실험을 할수 있었습니다."라고 밝히며 업체의 지원이 상당히 많고 그로인해 산학연계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우리나라 실정이 포장을 전문적으로 공부한 인력이 적고 현장에서 경험을 통해 일을 하는 사람이 대부분이라 전문적인 학문이 부족한 경향이 많아 자신이 배워온 학문을 사내기술대학에서 강의를 하고 싶다"고 안 과장은 포부를 밝혔다.

올해로 서른살인 그는 유학시절 만난 지금의 부인과 4년전 결혼하여 행복한 가정을 꾸려가고 있다. 아직 젊지만 당차고 실력있는 포장전문인력이 제일제당에 몸을 담고 무언가 새로운 일을 벌일 모양이므로 기대를 걸어도 될 듯 싶다. □

이선하 기자